

# 靑, 정부 안보라인 교체 인선 단행

통일부 장관 - 이인영  
안보실장 - 서훈  
국정원장 - 박지원 내정  
-----  
임종석 ·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는 이르면 오늘 임명



이인영 서훈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서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

보특별보좌관으로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과정 없이 즉시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이인영 후보자와 관련해 “남북 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현장과 의정 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차상대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

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훈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국정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

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의정 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과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종석 특별보좌관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해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의용 특별보좌관에 대해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민주 홍영표 의원, 당대표 불출마 선언

“문 정부 성공 위해 최선...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 소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대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월 예정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내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제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 지난 4월 국민들이 민주당에 큰 책임

감을 부여해주셨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부여한 과제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포함한 국난 극복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바탕으로 한 문제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숙명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아르헨 대통령 “문 대통령, 친구이자 동반자”

한-아르헨 양국 정상 통화서 “방호물품 지원 감사”  
문 대통령 “전통 우방국...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지원”  
아르헨 농축산물 시장 개방·투자 확대 등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췄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요청으로 성사된 정상 통화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0분간 진행됐다고 문재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양국이 독특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를 표명하고, 조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했다. 또 국경 봉쇄 조치 중인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입국 허용에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처하여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화상 회의를 통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20만불 상당의 아르헨티나에 방호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전통적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아르헨티나의 코로나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상들은 양국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포스코가 향후 1~2개월 이내 리튬 추출 데모 플랜트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리튬 데모 플랜트 사업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준공은 물론 이후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이다. 양국은 2018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메르코수르 T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메르코수르 정상간 화상통화가 있었다”며 대한민국과의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거주 중인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

과 지원을 당부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교민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잘 조화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인력이며, 형제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교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글로벌 연대 협력’ 및 ‘글로벌 인도주의 긴급 펀드’ 조성을 제안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뉴시스

## 與, 집값 폭등에 “국민께 송구 과감한 공급대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수도권 집값 폭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거론했다. 잇따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역으로 집값이 폭등해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민심이란 흐름이 나타나자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임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